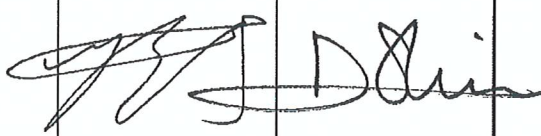


회의록		담당	의장
			
회의명	제1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일시	2018. 2. 2(금) 15:00	장소	600주년기념관 3층 제3회의실
참석위원	신동렬, 이희옥, 김윤제, 김중환, 원유빈, 송인만 평의원 참석 / 현선해, 오하영, 박성수, 장연철 평의원 위임장 제출 (이상 총 10명) ※ 송성진 기획조정처장, 박성현 예산기획팀장, 김영훈 전략기획.홍보팀 주임 배석		
불참위원	오훈영 평의원		

### 1. 개 회

- 신동렬 대학평의원회 의장(이하 의장)이 위임장을 제출한 평의원을 포함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한 후 제1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하다.
- 이어 김홍덕 과장이 전차 회의록을 불입의 자료와 같이 위원들에게 낭독하다. 의장이 전체 평의원의 수정 의견 제시 여부를 확인한 후 회의록을 원안대로 확정하다.

### 2.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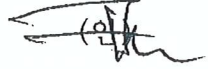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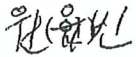

- 심의사항으로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전략기획.홍보팀 김영훈 주임(이하 주임)이 불입의 자료와 같이 안건 설명을 진행하다.
- 김윤제 평의원이 대학원 과학수사학과 의 계열이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으로 변경된 이유를 질의하다. 이에 송성진 기초처장(이하 처장)이 과학수사학과내 특정 전공에 실험실습이 필요한 분야가 있어서 학과에서 계열 변경을 요청하여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답변하다.
- 김윤제 평의원이 학칙 제13조 3항의 “교무운영상” 필요라는 표현을 “교육과정 운영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다.
- 이희옥 평의원이 학칙 제41조 제1항 제2호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라는 표현에서 인정하는 주체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다. 이에 대해 처장이 1항의 생략된 조문 속에 해당 주체가 표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동 인정의 주체는 해당 학장이라고 답변하다.
- 송인만 평의원이 융합전공제도 등과 관련하여 특히 인문과 자연과학 간의 융합이 매우 중요할텐데 현재 대학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이에 처장이 2021년, 문이과 통합 교육세대의 대학 입학에 대비하여 교양교육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신동렬 대학평의원회 의장(이하 의장)이 평의원들에게 질의사항 또는 의견이 없는지 재차 확인한 후 평의원 전체의 동의하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 3. 2017학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및 2018학년도 본예산 편성(안) 자문

- 의장이 안건 설명을 요청하자 박성현 예산기획팀장(이하 팀장)이 붙임의 자료와 같이 안건설명을 진행한다.
- 송인만 평의원이 매년 적자 예산 편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다. 이에 처장이 동 의견에 공감하며 2020년경이면 경상수지 자체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다. 대학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경비절감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학생 증대, 성인재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산학협력수요에 대한 부응 등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를 꾀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하다.
- 김윤제 평의원이 우리대학 재정에서 인건비가 몇 년째 동결인지 질의하다. 이에 대해 팀장이 완전히 동결된 것은 아니고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왔으나 0.4~0.8% 이내의 소폭이었다고 답변하다. 부연하여 처장이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점차 재정적인 입계치에 직면하여,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례로 D여대의 경우 교육부의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하다. 팀장이 K대, Y대의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에 따른 유틸리티 비용의 지속적인 투입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하다.
- 원유빈 평의원이 외국인등록금을 차등 인상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이에 대해 팀장이 본교 외국인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이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고, 외국인학생들의 경우 내국인 학생들과 비교할 때 부가적인 행정서비스가 많이 투입되는 바,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여 차등인상을 결정하였다고 답변하다. 처장이 이에 부가하여 외국인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분은 외국인학생 서비스 확대, 장학금 증액(ex. 외국인 가계곤란장학금 신설 등),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외국인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 김윤제 평의원이 안건자료 20페이지의 '논문표절 0.7억'의 의미를 질의하다. 이에 팀장이 논문표절여부를 검색, 확인해주는 시스템 도입에 배정된 예산이라고 설명하다.
- 김중환 평의원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애써온 대학의 노력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하다. 다만 대학이 교육 및 연구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해온 이면에 대학을 위해 헌신해온 구성원들의 복지와 처우에 대한 고민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다. 덧붙여 송인만 평의원이 대학 사회에서 수년간 인건비가 거의 동결되다시피 하는 동안 일반 사회에서의 인건비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의 대학 인건비 수준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다.
- 다른 의견 및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의장이 평의원 전체의 동의하에 2017학년도 2차 추경예산편성(안) 및 2018학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 이상과 같이 논의하고 의장이 16:00에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제1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 끝.

신동렬		현선해	<위임>	이희옥	
김윤제		오하영	<위임>		
박성수	<위임>	김중환			
원유빈		오훈영	(인)		
송인만		장연철	<위임>		